

SMPS 자동검사시스템 본격시판 경덕전자(주)

경덕전자(대표 : 尹學範)가 SMPS(스위칭모드 파워 서플라이) 자동 검사 시스템을 개발 본격 시판에 나섰다.

동사는 이달중 SMPS 자동검사시스템(모델명 AT-2000) 양산체제를 갖추고 SMPS 업계 및 연구소를 대상으로 판매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난 91년부터 총 4억 5,000만원의 개발비가 투입된 이 시스템은 입력 및 출력부하 등 검사조건을 컴퓨터로 자동 설정해 정해진 검사항목을 일괄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장비이다.

이 시스템은 최대 7개의 출력을 가진 AC와 DC SMPS의 전기적인 특성에 대해 SMPS가 요구하는 모든 검사사항을 손쉽게 실행할 수 있다.

동사는 이 시스템을 모듈 시스템으로 구성, 확장이 용이하도록 설계했으며 검사에 필요한 기준 라이브러리를 부가했다.

고성능 음원 IC 개발 (주)금성사

금성사(대표 : 李憲祖)가 멀티미디어 PC·전자악기 등에 쓰이는 사운드 카드의 소리 음질을 크게 높인 PCM 방식의 음원IC(집적회로)를 개발, 출시했다.

음원IC는 사운드카드의 발성장

치 중 핵심으로 금성사는 5억여원의 연구비를 들여 국산화함으로써 그간 국내업체가 연간 40만개(1천만달러 상당)의 수요 전량을 日本·프랑스 등으로부터 수입 의존해오던 것을 상당량 대체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부품은 새로운 음원 합성 방식이 채택돼 CD(콤팩트디스크)와 같은 수준(16비트 44.1KHz)의 재생기능을 발휘하며 한번에 낼 수 있는 음의 수도 기존의 20개 안팎에서 32개 수준으로 크게 늘어났다.

윤동윤 체신부 장관, 금성정보통신 안양연구소 방문 금성정보통신(주)

윤동윤(尹東潤) 체신부 장관은 지난 5월 17일 금성정보통신 안양연구소를 방문, CDMA 개발 현황을 점검하고 기술개발에 여념이 없는 연구원들을 격려했다.

이날 윤 장관은 최근 DCN(디지털 셀룰러 네트워크) 구축과 관련해 그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는 CDMA 시스템의 개발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시스템의 조기 상용화를 위해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CDMA 시스템은 세계적으로도 상용화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최첨단의 디지털 이동통신 시스템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미국의 쉘컴사와 협력하여 ETRI(한국전자통신연구소), 금성정보통신, 삼성, 현대, 맥스 등이 '96년 상용화를

목표로 공동 개발중인 제품이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4월 20일 한국이동통신(KMT)이 최초로 실시한 CDMA 시스템 구매 입찰에서 동사가 공급자로 낙찰돼 교환국 1식, 기지국 1식, 단말기 30대를 공급키로 결정된 바 있다.



해외거래선 기술교육 실시 금성정보통신(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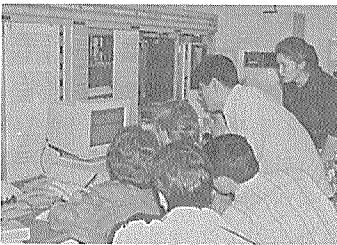
금성정보통신(대표 : 鄭壯皓)은 중국과 러시아 현지 합작·생산법인의 기술진 15명을 초청하여 한 달 일정으로 생산라인 견학 및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해 베트남을 비롯해 유럽, 중남미, 동남아 등 해외거래선 12개국의 관련기술진을 초청하여 기술교육을 실시한 바 있는 동사는 수출경쟁력 강화의 일환으로 해마다 해외거래선의 기술진을 초청하여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에 초청된 러시아 사마라 기술진 5명과 중국 HGT사 기술진 10명은 4월 8일부터 5월 11일까지 안양연구소와 구미공장에서 금성정보통신의 교환기 독자 모델인 Starex-TX1과 Starex-TP에 대한 기술교육을 받았다.

현재 러시아와 중국에서 교환기 설치 및 유지보수를 담당하고 있는 이들은 교육기간에 Starex-TX1, TP의 시스템 개요에서부터 프로세서, 신호장치, 교환회로, 데이터베이스, 수입검사 개론 및 규칙 등 시스템의 설치 및 유지보수, Test에 이르기까지 시스템 전반에 걸친 이론 및 실습 교육을 받는다.

한편 동사는 지난 해 7월 러시아 사마라市에 12만 급 회선의 Starex-TX1을 공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했으며 같은 해 4월 중국 HGT사와 국·사설 전자 교환기 및 각종 통신기기 생산 및 판매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네트워크 사업 강화 금성정보통신(주)

금성정보통신은 4월 한 달 동안 통신망 사업자, 금융권, 정부관련 기관 등을 대상으로 네트워크 제품 소개 및 네트워크의 올바른 구축방향에 대한 집중적인 세미나를 실시했다.

현재 국산장비를 이용, 자사의 종합정보통신망인 블라닉(Vlanic)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동사는 4월 18일부터 23일까지 협

력업체를 대상으로, 4월 7일부터 21일까지 3회에 걸쳐 전국 시도청 관계자를 대상으로, 그리고 4월 25일에는 KT, 테이콤 등 통신망 사업자를 비롯해 '금융권, 정부관련기관을 대상으로 네트워크 제품 소개와 구축방향에 대한 세미나를 실시했다.

지난 해 이미 자체 개발한 LAN 장비 전종목에 대한 형식승인을 획득한 바 있는 동사는 현재 무선 LAN, ATM 방식의 네트워크 장비 그리고 다양한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앞으로 Vlanic을 통해 완벽한 테스트를 거친 모든 제품의 해외시장 진출도 적극 모색할 예정이다. 올 해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SI 사업을 전개할 예정인 동사는 각종 하드웨어는 물론 TCP/IP, 클라이언트 서버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메세지 핸들링 시스템(MHS) 등 모든 시스템 및 응용 소프트웨어를 갖추고 사용자의 요구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Total Solution 제공을 통해 대형 프로젝트 위주의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하이브리드 키폰시스템 개발 금성통신(주)

금성통신(대표 : 吳世熙)은 국내 처음으로 여관·병원 및 요식업소 등의 접객업소 전용으로 설계된 하이브리드 키폰시스템(모델명 CK-432HB)을 개발, 시판에 나선다고 밝혔다.

기존 키폰시스템은 OA 및 통신망으로 활용되어 왔으나 이번에 개발된 제품은 접객업소의 특성을 고려한 전용 기능을 개발했기 때문에 키폰시스템의 수요층을 확대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제품은 최대 국선 4회선/내선 32회선까지 확장사용이 가능하고 객실의 전화기 도난방지를 위한 전화기 도난경보, 객실의 체크아웃 기능, 내선의 시내외 통화 횟수 제한 기능 등을 지니고 있다.

14만원대 국민형 컴퓨터 신제품 발표 뉴텍컴퓨터

뉴텍컴퓨터는 VESA로컬버스형 486컴퓨터(모델명 VESA 486 DX2)와 멀티미디어 컴퓨터(VESA 486 DX2 MPC) 등 2종의 신제품을 발표했다.

이들 PC는 모두 486DX2-50급으로 가격은 119만원과 147만원(모니터·부가세 별도)인데 멀티미디어 PC의 경우 종전 201만원(동급)에서 147만원으로 26.9%를 인하했다.

동사가 국민형 컴퓨터로 이름을 붙이고 저가형으로 선보인 이 제품중 VESA 486 DX2는 인텔사의 486 DX2-50 CPU를 채용하

고 기본 메모리는 4MB이며 210MB의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채용했다.

광가입자장치 · 케이블TV 등 유선통신부문 강화 대영전자공업(주)

대영전자(대표 : 趙炳龍)는 무선통신 위주의 사업구조에서 유선통신 부문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전략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 위해 광가입자장치(FLC : Fiber Loof Carrier), 케이블TV, 광대역 종합정보통신망(B-ISDN) 부문을 주력사업화해 개발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광가입자장치 부문은 한국통신(KT) 연구개발단과 공동으로 지난 해부터 개발을 추진중이며 이에 따라 600 가입자를 수용할 수 있는 FLC-600을 올 연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케이블TV 장비의 경우 아날로그 방식의 장비는 현재 기술계약을 맺고 있는 독일 카트라인社와 협력해 지속적으로 개발을 추진해 나가고 향후 케이블TV장비의 디지털화에 대비해 디지털 장비는 한국전자통신연구소(ETRI)와 공동으로 개발할 방침이다.

USA 해외잡지에 우수제품 선정 대우전자(주)

대우전자 VCR 제품이 해외시장에서 우수제품으로 선정돼 품질

수준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스페인의 오디오 비디오 전문잡지인 「알타 피델리다드(Alta Fidelidad)」는 올 해 스페인 내에서 판매되는 VCR 제품의 성능검사를 실시한 결과 동사의 제품(모델명 : DVR-7779D)이 화질을 비롯해 녹화, 재생, 멈춤, 빨리감기, 되감기, 채널, 음량, 조그셔틀 기능, 디자인 등 기본기능과 부가기능 등 모든 면에서 결점없이 우수하며 가격대비 성능이 가장 뛰어나 본격 출시되면 동급시장에서는 경쟁자인 일본제품을 제치고 정상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알타 피델리다드는 스페인 내에서 발행되는 권위있는 오디오 비디오 전문지로 일정수준 이상의 브랜드 인지도가 있는 제품의 성능검사를 부정기적으로 실시, 우수제품을 소개하는데, 국내 가전제품 성능검사는 동사 VCR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소개된 VCR은 티타늄 코팅 헤드드럼을 채용, 기존 알루미늄 헤드드럼에 비해 내구성을 10배 이상 높인 4헤드 고급형 제품으로, 내수 및 수출용 거의 전제품에 티타늄 코팅 헤드 드럼을 채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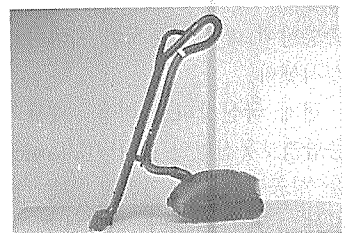
저소음 청소기 수출 호조 대우전자(주)

대우전자의 저소음 진공청소기가 최근 내수시장 뿐만아니라 구미업체가 주도하고 있는 해외시장에서도 계속 인기를 끌어 주목되고 있다.

동사는 지난 4월까지 저소음 청소기 수출실적이 6만 5,000대로 전년동기 대비 80%나 늘어났으며 일본의 마루만을 비롯 이달 들어 NEC사에도 수출하기 시작, 오는 7월까지 수주가 8만 4,000대에 이르러 올 해 대일 수출목표 25만대를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다.

동사의 저소음 청소기는 대만시장에서도 크게 인기를 끌어 지난해 총 40만대의 청소기 시장에서 8만대를 판매, 현지 시장점유율에서 1위를 고수하고 있으며 올 해 12만대 판매 목표로 M/S를 20%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이처럼 동사의 청소기 수출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것은 지난 2월 공진청이 국내 가전 3사와 외제 청소기에 대한 품질비교평가 결과 MCS 설계방식을 세계최초로 적용한 대우전자의 저소음 청소기가 370W 최대 출력시 58dB, 정음운전시 43dB로 소음이 가장



적게 나타나 그 우수성이 입증 되었을 뿐만아니라, 흡입력도 크게 개선하고 불량률도 거의 없는 등 품질면에서 외국업체들에 비해 월등한 경쟁력을 갖췄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입체냉장고 탱크 협력업체 설명회 개최 대우전자(주)

대우전자(대표 : 裴洵勳)는 협력업체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폭발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입체냉장고 『탱크』의 설명회를 개최한 다.

이 설명회는 냉장고를 생산하고 있는 광주와 인천지역에 있는 총 91개 업체 사원들을 대상으로 25일부터 6월 말까지 47차에 걸쳐 교재와 슬라이드를 통한 제품교육과 시음회를 실시하여 입체 냉장 고의 우수성을 설명한다.

대우전자는 지난 2월부터 3월 까지 2개월간 전국 6개 판매사업 부와 30개 지사의 영업사원과 주 부사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 최하여 이미 큰 성과를 올린 바 있 는데 제품의 판매증대를 위해서는 협력업체의 안정된 부품 품질과 급격한 생산물량 확대에도 납기의 준수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 이 같은 설명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 참가한 협력업체 들은 고품질의 냉장고를 만들기 위해서는 현장에서의 품질이 우선 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는 데 인 식을 같이하고 시장여건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올해 냉장고 판매가 지난해보다 약 80%가 증가하는 등 판매가 호조를 보이고 있는 것 은 입체냉장고의 품질혁신이 주효 했다고 판단 세계 최고 수준의 품 질확보를 위하여 협력업체가 계속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파리에 디자인 연구소 설립 대우전자(주)

대우전자가 프랑스 파리 소재 현지 판매법인에 유럽시장 전체를 관장할 디자인 연구소를 설립했 다.

동사는 이를 2000년까지 현지 디자이너 30명을 확보한 유럽거점 디자인센터로 육성키로 하고 현지 인 채용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이 조직은 TV·전자레인지 등 품 목을 중심으로 6월부터 가동된다.

이 연구소는 제품디자인 개발을 위해 현지 소비자의 생활양태 분석 및 시장정보의 수집에 나서기 로 했다.

이를 위해 디자이너 외에도 마 케팅 분석 인력·시장정보 통신원 을 채용, 수년 내 상품기획·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종합 마케팅 센 터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동사는 밝혔다.

펜티엄 PC 2종 (CPC-5860A, CPC-5860B) 발표 대우통신(주)

대우통신(대표 : 朴成圭)은 5월 12일 펜티엄 PC 신제품 2개 모델 (모델명 CPC-5860A, CPC-5860B)을 발표, 20일부터 198만 원 및 248만원에 판매한다.

펜티엄 PC 2개 모델은 모두 탁 상형으로서 60MHz의 CPU를 채용했고 VESA 로컬 방식의 32비 트 버스로 접속되는 비디오 카드

를 사용하고 있다.

또 「윈도즈」 가속기를 채용, 그래픽 처리능력이 우수하며 다양한 한글 한자 글자꼴을 제공한다. 기본 메모리는 8MB이고 최대 182MB까지 확장할 수 있으며 외부 캐시 메모리는 512K까지 확장할 수 있다.

CPC-5860A 형은 플로피디스크 드라이브와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마우스를 채용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임의로 부착하도록 했으며 소프트웨어는 「MS-DOS 6.0」만을 깔았다.

동사는 올 해 펜티엄 PC 시장 규모를 약 10만대로 보고 6만대를 판매한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7개 전품목에 ISO 인증 획득 (주)미원유화

(주)미원유화(대표 : 李德林) 울산공장이 생산하는 7개 전품목에 대해 국제표준화기구가 정한 ISO 9002인증을 받았다고 5월 21일 밝혔다.

품질인증 대상은 합성수지 제품인 폴리스티렌(PS)과 아크릴로니트릴 부타디엔(ABS)·SAN·EPS·엔지니어링 플라스틱(ENPLA)·복합수지발포체·폴리프로필렌 클리콜(PPG) 등의 생산공정이다. 품질인증 기관은 영국의 권위 있는 인증기관인 DNV-QA社다.

전자침 진료시스템 개발

(주)메디슨

(주)메디슨(대표 : 李珉和)은 경락을 통해 인체질병을 진단하고 정량화된 전자에너지로이를 치료하는 컴퓨터 전자침 진료시스템(모델명 메리디안)을 개발, 6월부터 본격 시판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 진료시스템은 인체 건강상 불균형에 대한 진단과 치료는 물론 미소 전자에너지로 잠복중인 병소(Focus)를 자극, 감염장소의 영향력을 검사할 수 있으며 동종 요법 및 노조드 등을 이용한 약제 검사도 가능해 동·서양 의학자들의 연구·실험용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다.

특히 「메리디안」은 컴퓨터에 의한 전문가 시스템을 도입, 측정결과들을 기초로한 컴퓨터 자동진단 기능을 통해 가장 개연성 있는 진단소견을 제시하고 2차 검진이 필요한 경우 이를 위한 진단방법상의 권장사항들을 편집할 수 있는 첨단 전자치료시스템으로 평가되고 있다.

CDMA/ETACS 관련제품 공동개발 계약 체결 맥슨전자(주)

맥슨전자(주)(대표 : 윤원영)에서는 켈컴과 CDMA(Code Division Multiple Access-코드분할 다원접속방식) 관련제품을 공동개발기로 계약했다.

맥슨과 켈컴이 공동개발에 합의

한 목적은 앞으로 예상되는 중국, 인도, 동남아시아 및 일부 유럽의 시장을 겨냥한 것으로 현재 아날로그 ETACS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시장들이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휴대폰의 개발이 그 주목적이고 그의 WLL(무선근접전화망)로 유선전화 시설이 미비한 지역에 전화선을 설치하지 않고 무선으로 전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 WLL방식은 재래식 전화선 방식보다 설치기간이 빠르고 가격도 저렴하게 될 수 있고, 또 유지비도 저렴함으로 많은 개발도상지역에서 관심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이미 맥슨은 1993년 8월에 켈컴과 CDMA 방식 휴대폰의 라이선스 합의서에 서명한 바 있는데 그 계약은 CDMA 기술도입으로서 맥슨, 삼성, 금성, 현대의 4개사가 참여하여 개발준비 중이며, 현재 한국의 아날로그 휴대폰 시스템은 미국의 AMPS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는데 반해 새로 발족할 제2이동통신이 채택할 차세대 디지털 시스템이 바로 CDMA방식이다.

이에 맥슨은 CDMA/AMPS 겸용 휴대폰을 미국의 Airtouch 사로부터 이미 주문받아 '95년 하반기부터 양산에 들어갈 예정이며 다른 미국 회사들과도 상담 중에 있다. 뿐만아니라 제2이동통신(신세기 이동통신)과도 CDMA/AMPS 겸용 혹은 CDMA ONLY 휴대폰을 1995년 말경부터 공급할 예정으로 개발 중에 있기도 하다.

멀티미디어 PC 개발
(주)삼보컴퓨터

삼보컴퓨터(대표 : 李正植)는 국내 처음으로 DSP(Digital Signal Processor)를 채택, 통신기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킨 멀티미디어 PC를 개발했다.

「똑딱Q」란 애칭이 붙여진 이 PC(모델명 TG486H+)는 삼보컴퓨터가 멀티미디어 시대에 대응, 아날로그 디바이스사의 DSP 칩을 채용한 DSP 보드와 응용프로그램을 개발해 이를 채용함으로써 별도의 장치없이 노래방, 음악감상 등 오디오 기능을 가지며 특히 팩스, PC 통신, 삐삐호출, 자동응답, 스피커폰 등 다양한 통신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이 PC에 채용된 DSP를 이용한 통신은 일반 2,400bps보다는 전송속도가 6배가 빠른 14,400bps의 고속통신기능을 지녀 데이터를 고속으로 송수신 할 수 있으며 오디오 기능도 CD 수준인 16비트 사운드 기능을 갖추고 있어 고감도의 음악을 감상하거나 노래방을 구성할 수 있다.

DSP는 CPU처럼 일종의 프로세서로서 CPU가 일반 연산이나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과 달리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로 바꿔 주로 음성신호를 유용하게 처리한다.

이 컴퓨터의 주요제품 규격은 486SX-25MHz, 4MB메모리, 210MB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갖추고 있으며 EPA의 에너지 스

타로고를 부착한 절전형 제품으로서 삼보는 5월말부터 시판할 계획이다.

차세대 개인용
휴대 정보단말기 개발
(주)삼보컴퓨터

삼보컴퓨터는 최근 차세대 개인용 휴대 정보단말기(PDA)를 국내 최초로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 단말기는 손바닥만한 크기에 440g의 초경량으로 주머니 속에 휴대할 수 있는 개인정보관리에 유용한 제품이다. 개인용 컴퓨터(PC)가 키보드로 정보를 입력하는 데 반해 PDA는 전자 잉크라 불리는 터치패널에 볼펜으로 정보를 입력하며 모뎀을 꽂아 전화선이나 무선으로 정보를 송·수신할 수 있다.

이 제품은 1메가바이트(MB)의 주기억용량과 80시간까지 사용이 가능한 배터리를 내장했고 PC의 하드디스크 기능을 하는 2MB의 플래시 메모리를 장착했다.

동사는 휴대용 전화기와 연결, 무선으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이 제품이 보험·자동차 등의 영업사원용 단말기를 대체할 것으로 보고 '95년 초 시판에 나설 예정이다.

동화상 재생기술 개발
삼성전자(주)

삼성전자(대표 : 김광호)가 32

비트 MPU(Micro Processing Unit)를 이용, 속도와 호환성을 대폭 늘린 동화상 재생기술을 CDI-FMV에 적용하는 데 세계최초로 성공하였다.

동사가 10억원의 개발비를 들여 1년여 만에 개발에 성공한 이 동화상 재생기술은 멀티미디어의 핵심기술로 MPEG(Moving Picture Image Coding Expert Group)에서 제안한 MPEG1을 기본으로 설계됐다.

동사가 32비트 MPU를 이용해 동화상 재생기술을 개발함에 따라 현재까지 16비트 MPU를 사용해 온 CDI-FMV, 비디오 CD 등의 속도를 최대 4배까지 향상시킬 수 있으며, 기타 MPEG1을 이용한 동화상 재생기기의 속도와 성능을 대폭 개선할 수 있게 됐다.

동사는 이 기술을 우선 CDI-FMV(CDI-Full Motion Video : 완전 동화상 CDI)에 적용해 동화상 재생 속도를 대폭 높였고, 간단히 통신용 보드를 장착하면 VOD(Video On Demand : 주문형 비디오)의 셋탑박스(Set Top Box : VOD 수신 재생기기)로도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지금까지의 CDI-FWV는 16비트 MPU를 사용했기 때문에 속도가 느려 동화상을 전송받는 VOD 셋탑박스로 사용하기는 어려웠다.

삼성전자가 32비트 MPU를 채용해 개발한 CDI-FMV는 대화형 디지털 비디오 기기로 CD-I로 실현할 수 있는 모든 대화형 기능과 동화상 재생까지 고속으로 가능케 한 제품이다.

ATM 교환기 개발 삼성전자(주)

삼성전자는 초당 2,000만개의 명령어를 처리할 수 있는 20MIPS 속도의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채용한 소용량급 ATM 교환기 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SDX-ATM으로 이름 붙여진 이 교환기는 음성은 물론 데이터·영상을 전송할 수 있는 등 처리용량을 기존의 디지털 교환기에 비해 2,400배나 향상시킨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이번에 개발한 ATM 교환기는 동사가 독자적으로 제안한 8.8스위칭 구조(SM 스위치 삼성 멀티캐스팅)를 채택하고 포트 당 처리용량이 160Mbps로 2만 가입자를 수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동사는 이 교환기의 포트를 확장할 경우 48만 가입자를 처리할 수 있고 멀티캐스트나 브로드캐스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일본, 오디오 전문업체 Lux사 전격 인수 삼성전자(주)

삼성전자는 20일 세계 최고 수준의 오디오 설계기술을 가진 일본의 Lux사(대표: 早川齊-하야카와 히토시)를 전격 인수하기로 하고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하이파이 오디오 분야에서 일거에 세

계적인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한편 한국기업으로는 일본의 상장기업을 인수한 첫번째 기업이 됐다.

동사는 Lux사의 대주주인 Alpine사(대표: 沓澤 虎太郎-구츠사와 겐타로)의 보유주식과 재무내용 개선 및 자본확충을 위해 증자하는 주식 전량을 20억엔에 매입함으로써 Lux사 주식의 51%를 확보, 경영권을 인수하게 됐다. 또 동사의 이번 인수는 Lux사가 가지고 있는 금융기관의 채무액 27억엔 중 25억엔을 대주주인 Alpine사가 대신 변제해주기로 하는 등 매우 유리한 조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9월부터 Lux사와의 상호연계된 사업운영을 본격적으로 실시할 예정인 동사는 하이파이 오디오 육성정책으로 명품 오디오의 개발, 생산, 판매에 이르기까지 책임감을 갖고 추진할 수 있도록 「小社長制」를 도입하는 등 내부조직 개편을 추진해왔다.

동사는 당분간 이 회사의 경영 정상화에 최선을 다하고, 향후 Lux사의 브랜드 이미지와 기술력에 삼성전자의 해외 판매망과 생산기반의 강점을 조화시켜 세계시장에서 매니아급 오디오는 “Luxman” 브랜드로 이미지를 한층 높여가고 LDP, CD-OK, 비디오 CD, MD 등 삼성전자가 보유하고 있는 첨단 디지털 기술을 융합시켜 차세대 AV기 개발로 확대 발전시켜 나갈 뿐아니라 뮤직센터, CD카세트 등의 중저가 제품은 중국, 인도네시아 등의 동남아 현지 공장에

서 생산, 가격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등 이번 Lux사 인수를 계기로 제품 및 시장특성별로 차별화된 전략을 전개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신세대 학생을 위한 비디오비전 “미니커플” 시판 삼성전자(주)

삼성전자는 신세대 학생들을 위한 미니 사이즈의 비디오비전 “미니커플”(모델명: SMB-1424B→14인치형)을 6월부터 시판한다.

동사가 이번에 개발한 미니커플은 TV와 VCR을 단순 조합한 형태가 아니라 설계단계부터 콤팩트하게 일체형으로 복합했기 때문에 책상위에 올려 놓을 수 있을 정도로 작고, 디자인을 라운드형으로 부드럽게 처리해 신세대 감각에 잘 어울린다.

특히 이 제품은 테이프를 위로 넣은 “톱 마운트” 방식이라 책상위에 올려 놓고 사용하기가 더욱 편리해졌고, 원하는 요일과 채널만 입력하면 간단히 예약이 끝나 빠르고 쉽게 예약녹화를 할 수 있는 “간단Q” 예약방식을 채택해 교육방송의 녹화가 한결 쉬워졌고, 2개의 수신 튜너를 이용해서 한 방송을 시청하면서 원하는 다른 방송을 녹화할 수 있는 타채널 동시녹화 기능을 채용, 예를들면 MBC를 보면서 교육방송을 녹화할 수 있는 비디오비전이다.

CCTV용 렌즈 3종 국산화 성공 삼성항공산업(주)

삼성항공(대표 :李大遠)은 최근 폐쇄회로 CCTV용 교환렌즈 3종을 국산화하고 공급에 들어갔다.

동사가 2억원을 투자, 2년만에 개발한 이 교환렌즈는 자동조리개 기능을 내장해 빛의 양 변화에 자동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기존 CCTV 카메라에도 호환적으로 장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CCTV용 교환렌즈는 그 동안 일본에서 전량 수입 사용해 왔는데 동사가 이번에 국산화에 성공함으로써 상당한 수입대체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동사는 이미 이 렌즈를 미국에 1,000대 수출하기로 계약을 맺는 등 해외수출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차후 기능을 향상시킨 2배, 8배 줌렌즈의 개발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네시아에 콘덴서 합작공장 설립

삼영전자공업(주)

삼영전자공업(대표 :邊東俊)이 자본참여 형태로 인도네시아에 진출한다.

동사는 최근 인도네시아 케미콘사가 건설중인 전해 콘덴서 공장에 자본을 투자, 오는 6월부터 전해 콘덴서를 생산, 현지판매 및 수출에 나서기로 했다.

동사는 이번 계약에 따라 전체 자본금 1,800만달러의 20%인 360만달러를 투자하게 된다.

자카르타 근교의 베카시 시에 조만간 완공될 합작공장은 내달부터 본격 양산에 돌입할 계획이다.

우선 이 공장에서 월간 1,000여 만개의 각종 전해 콘덴서 류를 생산, 70% 정도는 현지에서 판매하고 나머지 30%는 수출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동사는 현지판매가 활성화될 경우 앞으로 이 공장의 생산규모를 월간 2,500여 만개 선으로 확충한다는 계획도 세워놓고 있다.

한편 각종 전자제품의 핵심부품으로 들어가는 전해 콘덴서는 현지의 전자산업 발전에 따라 그 수요도 매년 확대, 시장전망도 매우 밝은 것으로 알려졌다.

8인치 실리콘 웨이퍼 양산 (주)실트론

실트론(대표 :李昶世)이 16MD램의 주력 웨이퍼인 8인치 대구경 실리콘 웨이퍼의 양산에 들어간다.

동사는 16MD램의 수요확대를 겨냥, 지난 해 상반기부터 총 400억원을 들여 연건평 1,000평 규모의 8인치 웨이퍼 생산라인을 완공, 5월 13일 관련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구미 공장에서 준공식과 함께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동사는 1차로 연간 2천만 평방인치(si)의 생산능력을 갖추고 현재 금성일렉트론 등 소자업체에

품질인증을 요청중이며 16MD램의 생산증대에 따른 수요확대에 대비, 연내에 400억원을 추가로 들여 생산능력을 연간 4,000만 평방인치로 늘릴 계획이다.

이에 따라 동사의 실리콘 웨이퍼 생산능력은 지난 해 7,000만 평방인치에서 9,000만 평방인치로 늘어났으며, 연말까지는 1억 1,000만 평방인치로 확대된다.

컬러 브라운관 기술개발 협력 오리온전기(주)

오리온전기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이 컬러브라운관 핵심기술 개발을 위해 기술협력계약을 맺었다. 동사와 KIST는 총 14억원의 개발비와 3년간 양측이 9명의 박사급과 30여명의 연구인력을 투입, 컬러브라운관의 제조공정을 획기적으로 간소화시킬 수 있는 기술개발을 위해 産·硏기술협력계약을 지난 5월 25일 체결했다.

이번 공동연구는 첨단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이뤄지던 기존 産·硏합동연구와는 달리 생산기술연구에 초점을 맞춰 품질향상·컬러브라운관 제조공정 간소화를 통한 제조원가 절감연구를 주된 개발 목표로 하고 있다.

생산기술에 대한 연구 결과는 양측이 공동으로 특허를 출원, 실시권은 오리온電氣와 KIST는 세도마스크·포토리스트 등 컬러브라운관 관련기술을 비롯, 평판디스플레이 분야에서도 공동연구

를 한 바 있으며 현재 국책과제로 백색 EL표시 소자를 공동개발중이다.

원주형 포토센서 개발 (주)오토닉스

오토닉스가 원주형 포토센서(모델명 BR100-DDT)를 개발했다.

올 초 측면 검출 포토센서인 사각형 BMS 시리즈를 개발, 발표했던 동사는 포토센서의 품목 다양화를 통한 시장 확대를 겨냥, 검출부위의 직경이 18mm인 원주형 포토센서를 개발, 공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개발된 원주형 포토센서는 출력보호 회로를 내장하고 있고 검출거리가 100mm이며 불투명·반투명·투명 제품을 모두 검출할 수 있다.

DC 12~24V의 전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 센서의 소비전류는 40mA 이하이며 응답속도는 1밀리초 이하다.

사출성형기 개발 (주)SKC

SKC(대표 : 安是煥)는 사출성형기 전문업체인 東信油壓(대표 : 金志)과 공동으로 CD전용사출성형기(사진 : 모델명 PROMAX-25CD)를 국내 처음으로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SKC와 東信油壓이 5개월간의

연구기간을 거쳐 개발한 이 설비는 CD의 재질인 폴리카보네이트 수지의 균일성 유지를 위해 온도 제어 측정 구역을 늘렸으며 사출물의 형태를 일정한 시간동안 같은 압력으로 일정하게 지지하는 型縮力방식으로 종래의 토글방식 대신 4개의 타이 바(Tie Bar)를 이용한 유압방식을 채용해 金型縮力을 대폭 향상시킨 것이 특징이다.

지능형 경비시스템 출시 유니온시스템(주)

전자보안경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SI(시스템통합)업체인 유니온시스템(대표 : 宋炳南)이 이미지 처리기술을 이용한 「지능형 경비시스템」을 개발, 본격 공급에 나서고 있다.

이번에 선보인 제품은 동사가 보유하고 있는 뛰어난 「인식기술」을 활용하는 「이미지 처리 알고리즘」을 도입하고 CCD(고체촬상소자)카메라에서 받아들인 화상데이터를 이용하는 VSS(비디오 검색 시스템)와 카드 키·각종 센서를 통해 건물내 침입자를 감지할 수 있는 SMS(경비관리시스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시스템은 윈도우 환경에서 운용되고 화상 및 음성신호 등을 일반전화 회선이나 전용회선의 1개 회선을 사용해 호스컴퓨터에 전송, 넓은 지역과 원격지역을 통제센터에서 감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제품이다.

에어로 시스템 인수 (주)인켈

AV 전문업체인 (주)인켈(대표 : 崔錫漢)이 스피커 전문업체인 에어로 스피커를 인수했다.

동사는 향후 유통시장 개방에 따라 해외 유명 스피커사들과의 단품 경쟁에 있어서 국내시장 뿐만 아니라,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고자 인수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동사는 지난 KTB와 에어로와의 문제가 원만히 해결이 되어 오디오의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인수를 다시 검토, 5월 22일 전격 인수 계약을 체결, 25일 임시 이사회를 통해 인수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에어로시스템은 그동안 축적된 기술력과 연구개발원들을 바탕으로 고급화된 스피커를 계속해서 개발하여 시중에 선을 보일 예정이며 이 제품들은 인켈의 유통망을 통해 판매되기 때문에 큰 매출증가가 예상된다.

세계최초 C-UL 안전규격 승인 획득 (주)인켈

(주)인켈이 해외 수출모델중 OEM 브랜드인 미국의 Harman社의 리시버(모델명 : AVR20)에 대해 세계 최초로 C-UL 안전규

격승인을 획득했다.

C-UL 안전규격승인은 유럽의 EC가 통합되면서 이에 대한 안전 규격이 CE로 통일된 데 영향을 받고 NAFTA 이후 캐나다 정부 기관인 SCC(Standard Council Of Canada)에서 미국의 UL(Underwriters Laboratories Inc.)이 캐나다의 국가규격인 CSA 승인을 인정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것으로 UL이 CSA(Canadian Standards Association) 규격으로 Test하여 C-UL 규격승인을 내어 이를 SCC로 통보, 이를 승인받은 모델은 캐나다에서 CSA 승인과 똑같은 효력을 낼 수 있다.

동사는 C-UL 안전규격승인을 획득함으로써 미주지역으로 수출되는 모델에 대해서 기존에 캐나다와 미국에서 각각 안전규격승인을 받던 것을 하나로 줄임으로써 비용절감 및 제품에 대한 해외에서의 신용도를 높일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앞으로 O. E. M 브랜드뿐만 아니라 자사 브랜드에 대해서도 C-UL 안전규격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LBP 신제품 2종 발표 (주)큐닉스 컴퓨터

큐닉스컴퓨터(대표 : 張泳默)는 그런 환경에 대응, 절전기능이 향상된 A3용지용 레이저프린터 2종(모델명 QLBP SFⅢg)을 개발, 발표했다.

이 프린터는 커튼채 사용하지

않을 경우 32W를 소비해 180~250W의 전력을 소모하는 기존 프린터보다 전력소비량을 크게 줄였다.

실제 해상도가 600DPI인 SFⅢg는 A3용지까지 프린트할 수 있어 CAD용 출력률 또는 전자출판물(DTP)을 인쇄하는데 가장 적합하다.

금융종합시스템 개발 한국컴퓨터(주)

韓國컴퓨터(대표 : 韓洪燮)는 최근 한국형 금융영업점 구축을 위한 금융종합시스템을 개발,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금융종합시스템(핀토스)은 고객자율거래 단말기, 수표자동발급기, 수표처리기, 서명처리기 등의 자동화 기기와 관련 소프트웨어로 이루어져 있다.

동사는 이같은 금융종합솔루션(해결방안) 제공을 위해 자사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미국 전문 금융시스템업체인 ISC社와 유럽 올리베타社의 개방형 컴퓨터 기술을 채택했다.

단말기는 14인치 터치 스크린 방식으로 고객조작에 의한 조화가 가능하며 수표자동발급기는 기록과 판독 스탬핑 금액인자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서명처리기는 고객서명을 판독 보관하고 전송해 준다.

시스템의 기본 소프트웨어로는 ISC社의 금융전문 종합소프트웨어(피너클 플러스)와 올리베타社

의 개방형 통합정보 시스템 완전 개방형 금융영업점 소프트웨어 무인점포 관리시스템 등을 제공하고 있다.

컬러 CCTV용 카메라 개발 (주)한국통신

비디오폰 메이커인(주) 한국통신(대표 : 高聲郁)이 日本 파나소닉社에 이어 세계에서 두번째로 디지털방식의 컬러 CCTV(폐쇄회로TV)용 카메라를 개발, 5월부터 대수판매 및 수출에 들어갔다.

동사는 이 제품의 대량 생산을 통한 원가절감과 품질균일화를 위해 인천 남동공단 제2공장 내에 자동화 생산라인을 최근 완비했다.

동사가 개발한 CCTV용 카메라는 대당 판매가격이 60만원으로 파나소닉社 제품의 국내 시판가격(160만원)의 절반에도 못미쳐 수입대체는 물론 수출 증대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한국통신 부설연구소가 지난 2년간 7억원의 개발비를 투입, 국산화에 성공한 이 제품은 기존 아날로그 방식의 제품에 비해 색상구분이 명확하고 色재현성이 뛰어나며 逆光 상태에서도 피사체를 정확하게 잡을 수 있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반도체장비사업 본격화 해태전자(주)

반도체 장비사업에 신규참여를 추진중인 해태전자가 최근 국내외 관련 조직을 신설한 데 이어 일차로 제품화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 외관검사 장비를 국내의 수요업체에 소개하는 순회설명회(로드쇼)를 갖는 등 사업본격화를 위한 정지작업에 나섰다.

동사는 동일 CIM 등과 협력, 반도체 패키지 외관검사기를 비롯한 장비사업에 본격 진출키로 결정, 오는 7월중 시제품을 선보인다는 방침이래 5월 10, 11일 아남산업·삼성·금성·현대 등 국내 반도체 업체의 조립부문 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졌으며 12일부터는 홍콩·대만·싱가포르 등에서 순회설명회를 가졌다.

잉크젯 프린터 개발 현대전자산업(주)

현대전자(대표 : 鄭夢憲)는 16일 고속이며 소음이 적고 간편하게 패널을 조작할 수 있는 80칼럼용 잉크젯프린터(모델명 제노비아 6410)를 개발, 6월 초부터 본격 시판한다고 발표했다.

제노비아 6410프린터는 잉크를 분사시키는 노즐이 기존제품의 2배 이상인 128개를 채용, 한 번에 2줄 반씩 인쇄함으로써 프린팅 속도가 종전보다 2.5배가 빨라졌으며 소음을 45데시벨(dB) 이하로 줄였고 사용모드 전환시 별도의 딥스 위치를 조작할 필요가 없는 원터치 패널 조작방식과 인쇄용지 자동금지 장치를 기본으로 부착하

는 등 편리성을 높였다.

이 제품은 열을 가해 노즐을 통해 분사하는 버블방식을 채택, 300DPI의 높은 해상도를 지니고 있다.

입력버퍼도 56킬로KB를 내장, 프린터 포트의 병목현상을 최소화했다.

VOD 디코더 개발 현대전자산업(주)

현대전자는 주문형 비디오(VOD : Video On Demand)의 가정용 디코더를 개발해 VOD 시범서비스를 앞두고 있는 한국통신과 납품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VOD 가입자 집에 설치돼 일반 전화선으로 전송된 압축데이터를 해독해 TV로 재현하는 이 제품은 리모컨으로 프로그램 공급업자가 공급하는 영상물중 원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해 일반 VCR과 동일한 조작방법으로 시청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동사는 이번에 개발된 디코더가 한국통신의 시범서비스가 영화 위주로 돼 있어 압축된 영상신호의 해독과 프로그램 선택 기능에만 중점을 두었다며 향후 VOD 서비스가 홈쇼핑·뉴스·오락·각종 예약 등으로 확대될 것에 대비해 종합기능을 가진 제품 개발로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4형 TV 수출 본격화

(주)흥양

흥양(대표 : 高林實)이 울들어해의 바이어로부터의 주문이 크게 증가해 생산확대에 나서는 한편 수출활동을 본격화하고 있다.

동사는 이미 지난 4월말 자체개발한 새로운 형태의 신제품인 일명 「쇼트랙TV」 제품에 대한 일본 바이어로부터의 주문이 폭주, 현재까지 6만여 대의 수출물량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연말까지의 주문물량으로 동사는우선 5월말 말 월간 6,000여 대 규모씩 수출을 개시하는 한편 하반기부터 생산물량을 대폭 확대해 수출을 강화할 계획이다.

동사는 또 러시아로부터의 5인치짜리 소형TV의 수출주문도 크게 증가, 현재까지 25,000여 대의 오더를 확보함으로써 내달부터는 선적에 들어갈 예정이다.

국내최대규모의 전자파 야외 시험장 준공 생산기술연구원

생산기술연구원(원장 : 金永旭)은 경기도 광주군 퇴촌면에 소재한 2900평 규모의 전자파 야외시험장을 3년여에 걸쳐 공사를 완료하여 Turn Table, Antena Mast 등의 시설을 국내 기술진에 의해 설치하고 Spectrum Analyzer, Field Strength Meter 등의 주요장비를 갖추어 5월 21일 준공을 하게 되었다.

업 · 계 · 소 · 식

본 시험장은 체신부, 국제특별무선장해위원회(CISPR), 미연방통신위원회(FCC), 미국표준규격(ANSI) 등 국내외 기술기준에서 요구하는 시험장의 감쇠량 특성 및 제반성능을 만족하는 3m, 10m, 30m 급의 시험장 1기와 3m, 10m 급 시험장 1기 및 전도잡음 측정을 위한 별도의 측정실로 구성되어, 단일시험장으로는 국내최대규모로서 소형 전기, 전자기기로 부터 컴퓨터, 교환기, 자

동차 등 대형기기 까지 거의 모든 제품에 대한 측정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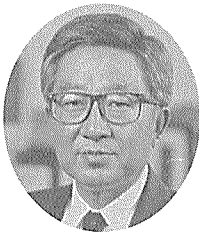
생기원은 대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관련장비 및 설비의 부족으로 전자과 장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태세가 미흡한 실정을 감안, 기업이 제품개발 단계에서부터 완제품 생산, 인증획득에 이르기까지 전자과에 대한 대책수립 지원은 물론 기업 스스로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도록 본 시험장의 무료개방을

통하여 지원할 방침이다.

따라서 기업은 제품개발 단계에서 전자과 특성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 전자과특성을 점검하면서 대책수립을 하고자 할 경우, FCC 장해검정 등 인증신청과 연계지원을 원하는 경우, 인증지원을 의뢰하기전에 고가의 측정설비가 없애로써 겪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회원사 임원동정

대우전자 배순훈 사장 「올해의 경영자상」 수상



배 순 훈
대우전자(주) 사장

능률협회는 지난 5월 12일 올해 한국의 경영자상 수상자로 배순훈 대우전자 사장을 선정했다.

배순훈 사장은 '91년 대우전자에 부임한 이후 기본 기능에 충실하고 고장없이 편리한 제

품을 만든다는 「탱크주의」를 선언, 공기방울세탁기, 입체냉장고, 초간편 VTR 등 세계적인 제품들을 개발한 공로로 경영자상을 받게 된 것이다.

제1회 멀티미디어 대상 시상식

상공자원부가 제정하고 한국경제신문사와 전자부품종합기술연구소가 공동으로 주관한 「제1회 멀티미디어 대상」 수상자에 대한 시상식이 지난 5월 17일 KOEX에서 개최됐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2배속 CD롬 드라이브를 개발한 금성사가 대상을 받았고 금성소프트웨어와 다우기술, 삼성전자, 코리아 실렉트웨어 등 4개사가 최우수상을 한국 멀티미디어 협회가 진흥보급상을 수상했다.